

‘윤장현 시장 절친’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논란

문화계 ‘자기 사람 심기’ 심각

광주시립미술관 관장도 사전 내정설 ‘무늬만 공모제’... 전문가들 무관심 잇단 낙하산에 인재 양성 토대 약화

윤장현 광주시장이 애초 기대했던 ‘CEO형 전문가’ 대신에 ‘30년 친구’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에 학교 동문인 정동철 전 장관을 선임한 데 이어 두 번째 문화계 수장 인사였던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에도 무척대고 ‘친한 사람’을 선택한 셈이다.

또 공모가 진행 중인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에도 이미 ‘윤 시장의 사람’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공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 문화계 장악한 ‘유피아’=윤 시장의 잇단 문화계 자기 사람 심기는 문화 전문가들이 광주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번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공모 전 이미 “윤 시장 사람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전임 시장에 이어 윤 시장마저도 문화계 낙하산 인사를 일관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외부 전문가들이 광주에서 공모를 하더라도 ‘사전 내정’ 탓에 접수를 아예 하지 않고, 지역 내 전문가들도 광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에서 문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투명 인사가 필수지만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서 인재 양성을 위한 토양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또 공모 중인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최근 미술계를 돌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광주시 동구 한 식당에서 “광주시청 담당 간부와 이 인사를 지지하는 일부 미술인이 만나 협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술계가 관장 내정에 반발하고 있다.

◇열악한 기금 확보 등 숙제=이번 광주문화재단 대표 이사 선임 과정에 문화계가 ‘CEO형 전문가’를 원했던 것은 재단의 기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국 문화재단의 기금 확보 책임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광주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문화재단 기금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광주문화재단의 목표 적립금은 500억원에 달하지만 현재 86억4100만원밖에 적립되지 않았고, 재단 운영의 독립 척도가 되는 윤 자재자급 비율도 광주는 2.21%(전체예산 169억2200만원 중 3억74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이 2016년 초에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지역 문화재단의 기금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에 일부 지역 문화재단은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늘릴 수 있는 투자 전문가 선임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스스로 기금을 늘리고, 운용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에 대해 선임 서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시민 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재임 기간 중 전국 평균 수준으로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 대표이사와 함께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서 탈락한 김재균 전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선발은 물론 건넌 것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승자 독식의 정글의 논리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광록·김경민 기자 kroh@kwangju.co.kr



‘스읍 지나가다’

‘신구 조화’ 정혜미의 도자기 금호갤러리 7일까지 청년작가전

2014년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혜미씨의 도예 개인전이 오는 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3관에서 열린다. 단국대 예술조형대학 도예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씨의 7번째 개인전으로 ‘그리고- 흔적’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현대와 전통의 절묘한 조화를 도자 오브제로 선보이는 정씨는 작품을 이루는 몸통과 두경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주제를 이끌어낸다.

작품의 굽을 구부리는 등 전통 도자의 형식미를 파괴한 작품이나 두경과 몸통이 혼연일체되어 선사하는 도자의 단아함이 정씨 작품의 특징이다. 특히 분청과 청자, 백자, 옹기 등 한국 전통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문의 062-360-843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류재웅 작 ‘과고정수’

남구 대표 문화유산 재조명 갤러리 리채, 16일까지 광주미협조합전

갤러리 리채(관장 이양숙)는 오는 16일까지 광주미술협동조합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 부제는 ‘미술인과 함께하는 남구 문화산책’이다.

전시에는 이양숙 관장을 비롯해 류재웅·박구원·황순철·한희원·정경래·조규철·김현승·조술·전영록·이희정·장용훈·김영일씨 등 광주미술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2013년 조합원들은 양림동의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스케치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는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와 문화유산을 다양한 미술작품으로 재조명했다. 특히 작가들의 대표작과 스케치 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류재웅씨는 남구 원산동에 있는 수령 600년 정도된 왕버들나무인 ‘과고정수(楸數亭樹·광주시기념물 제24호)의 기개와 푸르름을 화폭에 담았다. 정경래씨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제 제33호인 칠석동 고싸움놀이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렸다. 문의 062-412-000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 한달



2014광주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코넬리아 파커의 ‘어둠의 심장’을 관람하고 있다.

터전 불태울 만한 열기가 없다

유료관람객 4만8천명...25만 목표 달성 난망

‘작품 파손 우려’ 접근 금지 많아 관람권 침해

“사회 가치·역사 반영” 외신 반응은 위안거리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가 5일로 개막 한 달은 맞는다. 하지만 20주년 생일상을 일반에 선보인 광주비엔날레는 ‘터전을 불태우라’는 강렬한 주제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만한 화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목표 관람객 달성 힘들듯=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목표 유료 관람객을 25만 명으로 잡았다. 2012년과 2010년 총 관람객은 각각 22만7000명, 32만7981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까지 28일간 광주비엔날레를 다녀간 관람객은 5만9667명으로 이중 무료 관람객(1만919명)을 제외한 유료 관람객은 4만874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유료 관람객(4만4601명) 보다는 늘어난 수치지만 지난

2010년 10만4339명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은 38일간 모두 2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이 다녀가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지만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와 비슷한 기간 부산비엔날레, 대구시진비엔날레, 세마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 등 수많은 비엔날레가 개최되면서 전국적으로 관람객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비엔날레의 맹형인 광주비엔날레만의 매력을 크게 어필하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작품과 관람객 선 긋는 재단=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단체 관람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과 유치원생 등이 방문하면 전시장에서 일부 작품은 관람할 수 없다.

재단이 단체 관람객들에 의한 작품 파손을 우려해 전시장 내 운영인력을

늘리는 대신 관람객이 작품 자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막대’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접근 금지 막대 너머라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일부 작품은 아예 관람조차 힘들다.

이는 입장객의 ‘관람권’ 침해를 떠나 단체 관람객들의 동선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도슨트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접근 금지 막대’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신 평가는 위안=“함람 미술 전시”, “1990년대 중반 유행한 전시의 재구성”, “광주비엔날레의 퇴행” 등 혹평을 쏟아낸 국내 평론가들과 달리 외신들의 평가는 그나마 긍정적이었다. 뉴욕타임즈(9월17일)는 “2014광주비엔날레가 세계 비엔날레 현장에서 꼭 들려야 할 중요한 정착지가 됐다”고 평가했으며,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9월13일)는 “사회의 가치와 역사를 잘 반영한 국제 미술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영국 대표 일간지인 가디언(9월9일)은 “아주 활발하고 정력적인 비엔날레”라고 소개하며, 류 사오둥과 그림패 등지의 작품을 극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국립광주박물관 13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3~6시 박물관 전시관에서 ‘제2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를 감상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자리다.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박물관 전시관 중앙홀에서 전시된다.

참가신청은 10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문의 062-570-701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통혼례 보고 마을잔치 구경하고

우리문화예술원 통통음악회, 오늘 동구 산수동

(사)우리문화예술원은 오는 3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문화광장에서 전통혼례를 지켜보며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전통혼례는 주례 없는 이색 결혼식으로 진행되고,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을잔치로 펼쳐진다.

또 기다란 국수처럼 오래 잘 살라는 의미로 결혼식 날 전통적으로 손님에게 대접했던 우리 말 잔치 국수도 맛볼 수 있다.

마을농악단의 김놀이와 신랑신부의 축복을 기원하는 풍물재수굿으로 혼례식을 시작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통통음악회’를 진행한다.

이번이 22번째인 통통음악회에는 남성 성악팀 빅맨스이즈, 통기타듀엣 양철매미, 전자바이올린 강명진, 노래하는 가격 정용주씨 등이 공연을 한다.

또 이날 참여하는 관객들에게는 일흥건설에서 후원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사)우리문화예술원이 열고 있는 통통음악회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통통데이’에 절기별 야외음악회로 진행하고 있다.

민속절기 중 삼월삼짇날(음력 3월 3일), 오월단오(5월 5일), 칠월칠석(7월 7일) 등 음력으로 월과 일이 같은 날을 ‘통통데이’라 불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음악회를 열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BUILDING ARCHITECTS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